

清華簡 <管仲> 주해*

이연주** · 張崇禮***

<목 차>

1. 머리말
2. 清華簡 <管仲> 역주
3. 맺음말

1. 머리말

<管仲>은 2016년 발표된 《清華大學藏戰國竹簡》 第六輯 整理報告¹⁾에 포함된 5편의 전국시기 문헌 중 하나²⁾, 齊桓公과 管仲 사이의 治國之道에 대한 대화를 수록하고 있다. 齊桓公이 묻고 管仲이 이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12개의 문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³⁾, 출토된 簡은 총 30支이다.⁴⁾ 이는 전래본《管

* 본 논문은 2016년도 강원대학교 대학회계 학술연구조성비로 연구하였음(관리번호 -520160276).

** 강원대학교 중문과 교수

*** 中國 齊南大學 出土文獻與古代文學研究中心 教授

- 1) 清華簡(清華大學藏戰國竹簡)은 2008년 清華大學이 기증받아 2년여 기간에 걸친 보존 처리와 복원 작업을 거쳐 공개한 전국시대 죽간으로, 다수의 중요한 《尚書》 및 유사류 문헌과 여러 편의 귀중한 先秦시기 逸詩를 포함하고 있다. 2016년 12월 말 현재 6차에 걸친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清華簡에 대해서는 이연주·張崇禮(2014)에서 개괄하였다.
- 2) 이들은 모두 춘추시기 역사와 관련된 것들로 전에 보지 못했던 佚籍들로 알려지고 있다. 鄭, 齊, 秦, 楚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으며 죽간에는 모두 제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 제목은 정리하면서 임의로 정한 것들이다. 이 5편 중 <鄭武夫人規孺子>, <鄭文公問太伯>, <子產> 등 3편은 鄭나라의 역사와 연관이 있으며, <子儀>는 秦과 楚의 역사, <管仲>은 齊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李學勤(2016))
- 3) 본 글문과 체제가 비교적 유사하여 제환공이 묻고 관중이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편들

子》에는 없는 새로 발견된 것이다.

알려지고 있는 것처럼 현존하는 《管子》는 西漢말기 劉向의 編定을 거친 책으로 춘추시기의 위대한 정치가로 齊桓公을 도와 패자의 자리에 오르도록 한 관중의 경세이념과 계책을 기록한 문헌이다.⁵⁾ 劉向이 당시 모을 수 있었던 총 564편을 교수해 이 중 중복되는 내용을 제거하고 정리해 86편으로 펴냈으며, 이 후 또 11편이 망실되어 송대 이후 75편이 현재까지 전한다.⁶⁾ 《管子》는 방대한 분량 속에 잡다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왔지만 핵심에 있어 실용주의에 입각한 부국강병의 계책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⁷⁾.

淸華簡 <管仲>은 현존 《管子》에 없는 내용으로, 그 내용을 볼 때 篇目이 전해지고 있는 망실된 11편과도 다른 내용으로 추정되어 86篇 이외의 逸書로 추정되고 있다.⁸⁾ 본 죽간은 이것이 최소한 전국 중후기에 기록되어 전래되던 《管子》류의 문헌이며⁹⁾, 현존 《管子》에는 없는 逸書라는 점 외에도 내용에 있어 음양과 오행(五行) 관념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尚書》의 중요한 편으로 역대로 학자들의 중시를 받아온 《尚書·洪範》 편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내지 분명한 대응관계를 보인다는 점¹⁰⁾ 등으로 인해 학계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

은 현존《管子》에도 다수 있으며, <中匡>, <小匡>, <四稱>, <小問>, <桓公問>, <度地> 등이 그러하다.

- 4) <管仲>의 簡은 簡長이 約44.5mm이며, 現存하는 簡은 30支이다. 그러나 簡의 折損과 文句의 연결 상황으로 볼 때 第12段의 두 곳에 缺簡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몇 개의 支가 빠졌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李學勤(2016))
- 5) 전래되는 고문헌 중 적지 않은 수의 문헌이 그렇듯 《管子》역시 언젠, 누구에 의해 쓰였고, 또 편제된 것인지의 문제를 둘러싸고 오랜 세월 수많은 연구와 논쟁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해서는 신동준(2015) p.189-202 등에 소개되어 있다.
- 6) 梁, 隋시기에 이르러 <謀失>, <正言>, <封禪>, <言昭>, <修身>, <問霸>, <牧民解>, <問乘馬>, <輕重丙>, <輕重庚> 등 10篇이 亡佚되었으며, 宋에 이르러 <王言> 1篇이 또 亡佚되었다.(李學勤(2016))
- 7) 신동준(2015)은 《管子》를 관통하는 키워드를 실용주의에 입각한 부국강병의 계책으로 보았다.(신동준(2015), p.203) 최근 국내에서 이루어진 《管子》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로는 경세가로서의 관중과 텍스트 《管子》에 대해 탐구한 윤대식(2016) 등이 있다.
- 8) 李學勤(2016)
- 9) 淸華簡은 당시 楚지역에 속한 전국시대 중후기(480~22B.C.)의 무덤에서 도굴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방사성탄소 측정 결과 305±30B.C.시기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이연주·張崇禮(2014))
- 10) 淸華簡 <管仲>에서 이는 총 12개의 문답 중 第6段을 비롯해 第5段과 第7段에서 볼 수

다. 본고에서는 이들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는 하지 않는 대신 《管子》 또는 출토문헌에 나타난 고대 사상에 대해 연구하는 국내 학자들이 참고 및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清華簡 <管仲> 전문을 주해하기로 한다.

2. 清華簡 <管仲>¹¹⁾

【간문1】

齊 桓 (桓)公 鬻 (問)於 筭 (管)中(仲)曰：“中(仲)父，君子季 (學) 與不季 (學)，女 (如) 可 (何)？”筭 (管)中(仲) 倉 (答) 曰：“君子季 (學) 才 (哉)！季 (學) 於 (烏) 可以已 (已)？見善者 謹 (墨) [1] 女 (焉) [2]，見不善者戒[3] 女 (焉)。君子季 (學) 才 (哉)！季 (學) 於 (烏) 可以已 (已)？”

있다. 劉國忠(2016)에 따르면, 간문은 “正五紀, 慎四稱, 執五度, 修六政, 文之以色, 均之以音, 和之以味, 行之以行, 匡之以三, 度之以五”를 강조하고 있는데(第6段) 그 가운데 “文之以色, 均之以音, 和之以味, 行之以行”의 설은 분명히 五色, 五音, 五味, 五行과 대응되며(관련해서는 아래 주25, 26을 참고할 것) 간문의 五紀는 또한 《尚書·洪範》편의 “協用五紀”에도 나온다. 또한 간문에는 “君當歲, 大夫當月, 師尹當日, 焉知少多”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第7段) 이 말은 분명히 <洪範>의 “王省惟歲, 卿士惟月, 師尹惟日, 歲月日時無易, 百穀用成”을 이어받고 있다. 한편 이러한 연계는 중국 고대에 있어 이들 사상 또는 관념의 출현과 전개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는 동시에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온 《尚書·洪範》편의 창작 시기를 추정하는 데에도 중요한 참고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로는 劉國忠(2016) 및 ‘음양오행설과 관련 문헌의 연구’(徐復觀), 김홍경 편역(1993), pp.94-119가 있다) 이밖에도 본 간문은 李學勤(2016)의 지적처럼 전래본 《管子》<四稱>篇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을 비롯해 전래본 《管子》의 일부 篇들과 일정한 연관성이 있어 보이고 있어 향후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면 흥미로운 성과가 기대된다.

11) 본 역주는 清華大學藏戰國竹簡整理小組(이하 整理者라 함)가 연구 발표한 《清華大學藏戰國竹簡(六)》(上海, 中西書局, 2016)과 그밖에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검토해 참고하고 자체 연구해 작성하였다. 張崇禮의 연구를 토대로 이연주가 우리말로 역주하였으며 개요 등을 정리하였다. 주석에서 정리소조나 개별 학자의 견해를 인용한 경우는 이를 명시하였다. 본고의 심사과정에서 자형에 대한 주해가 함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한 심사자들이 있었으나 이는 본고에서 함께 다루기 어렵고 별도의 연구논문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齊桓公問於管仲曰：“仲父，君子學與不學，如何？”管仲答曰：“君子學哉，學烏可以已？見善者墨焉，見不善者戒焉。君子學哉，學烏可以已？”

【주석1】

[1] 整理者(2016): “ 謹 ”은 “墨”의 통가이다. 《太玄·盛》에 “盛不墨(법에 맞지 않는 것이 성하고)”라고 했는데, 司馬光 集註에 “法”이라고 했다. 여기서 는 동사로 쓰여, 본받다(效法)의 의미이다.

[2] 整理者(2016): “焉”은 여기서 指示代詞로 사용되었으며, “之(그것)”와 같다.

[3] 整理者(2016): 戒는 《說文》에서 “경계하다(警)의 뜻”이라고 했다. 《論語·里仁》에 “見賢思齊焉；見不賢而內自省也(현명한 자를 보면 그와 같아질 것을 생각하고, 현명하지 못한 자를 보면 안으로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 上博簡 <從政>에 “君子善聞言，以改其言；見善行，納其身焉。可謂學矣(군자는 말을 잘 들어야 하고 그에 따라 바르게 고쳐야 한다. 선행을 보면 그 자신이 받아들여야 한다. 이러해야 가히 배움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간문 번역1】

齊桓公이 管仲에게 물었다. “仲父, 君子는 배워야 합니까? 배우지 않아야 합니까?” 管仲이 대답했다. “君子는 배워야 합니다. 어찌 배우기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좋은 것을 보면 그것을 본받고, 좋지 않은 것을 보면 삼가고 경계하면 됩니다. 君子는 배워야 합니다. 어찌 배움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간문2】

起 (桓)公或 籒 (問)於 箕 (管)中(仲)曰：“中(仲)父， 起 (起) [1]事之本 系 (奚)從[2]?” 箕 (管)中(仲) 倉 (答)曰：“從人。”

桓公或問於管仲曰：“仲父，起事之本奚從？”管仲答曰：“從人。”

【주석2】

[1] 起은 시작하다는 뜻이다. 段玉裁 《說文解字注·走部》에 “起는 의미가引申되어 무릇 일이 시작되거나 일이 일어나는 것을 두루 지칭한다.”고 했다.

[2] 從은 介詞로 기점을 나타낸다. 《爾雅·釋詁上》에 “從은 비롯하다(自)의 뜻”이라고 했다.

【간문 번역2】

齊桓公이 또 管仲에게 물었다. “仲父, 일을 시작하는 근본은 어디에서 비롯 됩니까?” 管仲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서 비롯됩니다.”

【간문3】

起 (桓)公或 籒 (問)於 笑 (管)中(仲)曰：“中(仲)父，丌 (其)從人之道可 旻 (得) 籒 (聞) 虎 (乎)？”笑 (管)中(仲) 倉 (答)：“從人之道，止 (趾) 則心之本，手則心之枳 (枝)，目、耳則心之末，口則心之竅 (竅)。止 (趾) 不正則心卓 (掉) [1]，心不情 (靜) 則手 敷 (躁) [2]。心亡 (無) 愬 (圖) [3] 則目、耳豫 [4]，心 愬 (圖) 亡 (無) 獸 (守) 則言不道。言則行=之=首= (行之首，行之首) 則事之本也。尙 [5] 廛 (亶) [6] 之，尙諮 [7] 之，尙勿 (物) [8] 之。”

桓公或問於管仲曰：“仲父，其從人之道可得聞乎？”管仲答：“從人之道，趾則心之本，手則心之枝，目、耳則心之末，口則心之竅。趾不正則心掉，心不靜則手操。心無圖則耳、目豫，心圖無守則言不道。言則行之首，行之首則事之本也。尙亶之，尙諮之，尙物之。”

【주석3】

[1] 卓은 ‘掉’의 통가이다. 《說文·手部》에서 “掉는 흔들다(搖)의 뜻”이라고 했다. 段玉裁 注에 “掉는 搖가 지나친 것을 말하며, 搖는 掉가 미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섞어 말하기도 한다.”고 했다. 心掉는 마음과 정신이 불안정함을 뜻한다.

[2] 整理者(2016): 《禮記·月令》의 “毋躁(경솔하게 움직이지 말고)”의 鄭注에 躁는 “움직이다와 같다”고 했다.

[3] 整理者(2016): 圖는 도모하여 계획하다의 뜻이다.

[4] 網友 ‘厚予’: 豫는 원래 글자 그대로 쓰였으며, 게으르다(怠)의 뜻이다. 《玉篇》에 “豫는 게으르다(怠)의 뜻”이라고 했다. 《書·洪範》에 “曰豫, 恒熯若(게으르고 안일하면 날씨도 이상해져 때에 맞지 않게 따듯해지고)”라고 했는데, 沈蔡 集傳과 같다. “心亡(無) 圖則耳目豫”는 마음에서 도모하는 바가 없으면 눈과 귀가 나태해진다는 뜻이다.¹²⁾

[5] 整理者(2016): 尙은 명령을 나타내는 부사이다.

[6] 廩은 ‘亶’의 통가이며, 진실한, 성실한의 뜻이다. 《爾雅·釋詁上》에 “亶은 믿다(信)의 뜻”이라고 했다. 邢昺 疏에 “모두 성실하고 속이지 않음을 말한다.”라고 했다. 《詩·大雅·板》에 “不實於亶(성실함이 충실하지 못하고)”라고 했는데, 毛傳에 “亶은 성실하다(誠)의 뜻”이라고 했다. 鄭玄 箋에 “성실하고 믿음직함이 충실하지 못한 것을 말하는데, 언행이 서로 어긋남을 말한다.”고 했다.

[7] 詒은 정직하게 말하는 모습이다. 《墨子·親士》에 “君必有弗弗之臣, 上必有諝諝之士(군주에게는 반드시 뜻을 거스르는 바른 말을 하는 신하가 있어야 하고, 위사람에게는 반드시 직언을 하는 아랫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王筠의 《說文句讀·言部》에 “詒은 《墨子·親士篇》의 諝諝이며, 곧 곧은 말을 하다(諛諛)의 뜻”이라고 했다. 《玉篇·言部》에 “諛은 정직하게 말하다의 뜻”이라고 했다. 《集韻·鐸韻》에 “諛은 곧은 말을 하다(諛諛), 직언하다(直言)의 뜻”이라고 했다.

12) 簡帛網, 簡帛論壇 簡帛研讀, <清華六《管仲》初讀>帖, 37樓.

[8] 勿은 '物'의 통가이며, 사물의 내용, 실체를 말한다. 《易·家人》에 “君子以言有物而行有恆(군자는 이것을 본받아 말에 내용이 있고, 행동에 일관됨이 있어야 한다)”고 했으며, 《禮記·緇衣》에 “言有物而行有格也(말에는 내용이 있고, 행동에는 규칙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간문 번역3】

齊桓公이 또 管仲에게 물었다. “仲父, 일을 시작하는 근본이 사람에게서 비롯되는 이치에 대해 설명해주시겠소?” 管仲이 대답했다. “그 이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은 마음의 뿌리이고, 손은 마음의 가지이며, 눈과 귀는 마음의 말초이며, 입은 마음의 구멍입니다. 발이 바르지 못하면 마음이 흔들릴 것이고, 마음이 평정을 잃으면 손이 경솔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마음에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귀와 눈이 나태해져 마음이 무엇을 하고자 할 때에도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며 말을 하면 도에 합당하지 않게 됩니다. 말은 행동의 首長이며, 행동의 首長인즉 곧 일의 근본입니다. 바라옵건대 군주께서는 말을 함에 있어 진실하고 곧아야 하며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¹³⁾

【간문4】

桓(桓)公或 籒(問)於 筭(管)中(仲)曰：“中(仲)父，執(設)承女(如)之可(何)?立輔(輔)女(如)之可(何)?” 筭(管)中(仲) 倉(答)：“豎[1] 礎(礎)[2]不 匡(枉)[3], 執[4]即(節)[5] 綵(緣)[6] 纆(繩)[7], 可執(設)於承; 豎 礎(礎)以抗(抗)吉凶(陰)易(陽)遠逐(邇) 卡 = (上下)[8], 可立於輔(輔)。”

13) 마음의 신전인 신체를 대지에 뿌리 내리고 서 있는 나무처럼 간주해 이러한 바탕 하에 마음과 신체 사이의 상관성을 논하고 있으며 이에 빗대어 일을 하는 도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桓公或問於管仲曰：“仲父，設承如之何？立輔如之何？”管仲答：“鑿磧不枉，執節緣繩，可設於承；鑿磧以亢吉凶陰陽遠邇上下，可立於輔。”

【주석4】

[1] 《說文·金部》에 “鑿은 굳세다(剛)의 뜻”이라고 했다.

[2] 磧은 ‘磧’의 異體로 통가되었다. 《說文新附·石部》에 “磧은 기둥 아래의 주춧돌”이라고 했다. 鉏樹玉의 《說文新附攷》에 “磧은 고대에 質과 통했다”고 했다. 《廣雅·釋宮》에 “磧은 주춧돌(磧)의 뜻”이라고 했다. 王念孫 疏證에 “磧은 質을 말한다.”고 했다. 質은 독실하고 믿음직하다(篤厚)의 뜻이다.

[3] 整理者(2016)는 匡이 ‘枉’의 통가라고 했다. 枉은 굽다(彎曲)의 뜻이다. 《荀子·王霸》에 “辟之是猶立直木而求其景之枉也(그것은 마치 곧은 나무를 세워놓고 그 그림자가 굽어지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했다.

[4] 整理者(2016): 執은 《論語·子路》에 “執事敬(일을 행할 때는 경건하게)”라고 했는데, 劉寶楠 正義에 “행하다(行)와 같은 뜻”이라고 했다.

[5] 整理者(2016): 卽은 ‘節’의 통가이다. 《禮記·文王世子》에 “興秩節(행사를 상례대로 거행하게 하고)”라고 했는데, 鄭注에 “예(禮)와 같은 뜻”이라고 했다.

[6] 整理者(2016): 緣은 좃다, 거스르지 아니하다(順)의 뜻이다. 《管子·侈靡》에 “緣地之利(땅의 이로움을 거스르지 아니하고)”라고 했다.

[7] 黃傑(網名‘暮四郎’): ‘繩’의 뜻은 법도와 준칙(繩墨準則)이다.¹⁴⁾

[8] “鑿磧以亢(抗)吉凶陰陽遠邇上下”는 마땅히 한 구절로 보아야 한다. 網友‘厚子’는 亢字를 동사로 풀이해야 하며 “吉凶陰陽, 遠邇上下”가 그 목적어라고 주장했다.¹⁵⁾ 亢은 ‘抗’과 통하며, 막다(抵禦)의 뜻이다. 《字彙·一部》에 “亢은 막다(抵)의 뜻”이라고 했다. 朱駿聲《說文通訓定聲·壯部》에 “亢은 抗으로 통가된다”고 했다. “吉凶陰陽遠邇上下”는 각종 변화와 소란을 가리킨다.

14) 簡帛網, 簡帛論壇 簡帛研讀, <清華六《管仲》初讀>帖, 15樓.

15) 簡帛網, 簡帛論壇 簡帛研讀, <清華六《管仲》初讀>帖, 39樓.

【간문 번역4】

齊桓公이 또 管仲에게 물었다. “仲父, 천자의 곁에서 보좌하는 사람 承을 어떻게 세우고, 천자가 잘못을 저지르면 바로잡도록 도와주는 사람 輔를 어떻게 세워야 하지요?” 管仲이 대답했다. “군세고 독실하며 끈고, 예를 행하고 법도와 준칙을 거스르지 않는 사람이면 가히 承으로 세울 수 있으며, 군세고 독실하여 각종 변화와 소란을 능히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이면 가히 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간문5】

桓(桓)公或 鬻(問)於 筭(管)中(仲)曰:“中(仲)父, 它(施)正(政)之道 奚(奚)若?” 筭(管)中(仲) 倉(答):“既缺(設)承, 既立輔(輔), 簠(斂)之{以}[1]晶(三), 專(敷)[2]之以五[3], 丌(其)會(陰)則晶(三), 丌(其)易(陽)則五[4]。是則事首[5], 侁(惟)邦之 璠(寶)。”

桓公或問於管仲曰：“仲父，施政之道奚若？”管仲答：“既設承，既立輔，斂之以叁，敷之以五，其陰則叁，其陽則五。是則事首，惟邦之寶。”

【주석5】

- [1] 整理者(2016): “斂之叁”은 원래 “斂之以叁”이며, ‘以’字가 탈락되었다.
- [2] 黃傑(網名‘暮四郎’): 이 글자는 ‘敷’의 통자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敷’와 ‘斂’은 서로 호응하는 의미로 쓰였다.¹⁶⁾
- [3] 三과 五는 三才와 五倫을 가리킨다.¹⁷⁾

16) 簡帛網, 簡帛論壇 簡帛研讀, <淸華六<管仲>初讀>帖, 16樓.
 17) <淮南子·泰族>: “昔者, 五帝三王之蒞政施教, 必用參五。何謂參五? 仰取象於天, 俯取度於地, 中取法於人。…… 此之謂參。 制君臣之義, 父子之親, 夫婦之辨, 長幼之序, 朋友之際, 此之謂五。(옛날에 五帝三王이 정치를 함에 있어 教化를 시행했을 때는 반드시 參, 五를 사용했다. 參, 五란 무엇인가? 우선 우리러 하늘로부터 일월성신의 법상을 추측하고, 앞드리어 땅으로부터 度數를 추측하고, 중간으로는 사람으로부터 법규를 추측했다. …… 이상 천

[4] 《申鑒·政體》에 “故凡政之大經，法教而已矣。教者，陽之化也；法者，陰之符也(그리하여 무릇 정치의 큰 법도는 法教일 뿐이다. 教라는 것은 陽의 化이고, 法이라는 것은 陰의 符이다.)”라고 했는데, 三은 三才를 가리키며, 天地人의 法을 말하기 때문에 陰이라고 했고, 五는 五倫을 가리키며, 五常의 教를 말하기 때문에 陽이라고 했다.

[5] 整理者(2016): 事首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清華簡 <湯在啻門>18)에 “此惟事首，亦惟天道(오로지 가장 중요한 일은 역시 天道이다)”에도 보인다.

【간문 번역5】

齊桓公이 또 管仲에게 물었다. “仲父, 나라를 다스리는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管仲이 대답했다. “이미 承과 輔를 세웠으며 三才之法으로 거두고 五倫之教로 펴면 됩니다. 三才之法은 陰이 되고 五倫之教는 陽이 됩니다. 이것이 일 중에 으뜸가는 중요한 일이고 나라에서 보배로 여겨야 하는 일입니다.”

【간문6】

桓(桓)公或 鬻(問)於 箕(管)中(仲)曰: “中(仲)父, 千 輦(乘)之都, 型(刑)正(政) 既萬(厲) [1], 民人 陵(惰) 忒(怠), 夫(大夫) [2] 段(遐) [3] 事, 丕(便) 倖(變) 智(知) 官事長[4], 廷里[5] 霈(零) 荅(落) [6], 卉(草) 木不辟(闕), 敢 鬻(問) 耇(前) 文句(后) 爲之奴(如) 何?” 箕(管)中(仲) 倉(答): “正五紀[7], 斲(慎) 四稱(稱) [8], 執五尾(度) [9], 攸(修) 六正(政) [10], 文之以色, 均之以音, 和之以味(味), 行之以行, 圭(匡)

지인에 근거한 治政方針을 參이라고 한다. 또 君臣之義, 父子之親, 夫婦之辨, 長幼之序, 朋友之際를 정했다. 이런 덕목들을 五라고 하는 것이다”

18) <湯在啻門>은 《清華大學藏戰國竹簡》第五冊에 포함된 것으로, 伊尹의 事跡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연사를 기록한 논술로 道家類 문헌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으며, <赤鳩>가 小說家에 가까운 것과는 달리 아마도 초기 道家 사상의 ‘君人南面之術’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湯在啻門>은 총 21支의 簡으로, 내용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으며, 농후한 黃老思想을 가지고 있다.

之以晶(三), 厖(度)之以五[11], 少(小)事 逸(逸) [12]以楊[13], 大事束(簡) [14]以成[15], 執 惠(德)女(如) 縣[16], 執正(政)女(如) 纆(繩)。”

桓公或問於管仲曰：“仲父，千乘之都，刑政既厲，民人惰怠，大夫遐事，便嬖知官事長，廷里零落，草木不闢，敢問前文后爲之如何？”管仲答：“正五紀，慎四稱，執五度，修六政。文之以色，均之以音，和之以味，行之以行，匡之以叁，度之以五，小事逸以楊，大事簡以成，執德如縣，執政如繩。”

【주석6】

[1] 單育辰：“刑政既厲”의 ‘厲’은 ‘蔑’의 통가로 풀이하는 것보다 ‘厲’의 통가로 풀이하는 것이 간단하다. ‘厲’는 맹렬하다(猛烈), 매섭다(嚴厲)의 뜻이다. 上博六 <用曰>簡13의 “兇刑厲政”을 참조하라.19)

[2] 整理者(2016): 大夫는 都邑에서 일을 주관하던 관리이다.

[3] 段는 ‘遐’의 통가로, 멀리하다(遠), 소원히 하다(疏遠)의 뜻이다. 《書·胤征》에 “傲擾天紀，遐棄厥司(하늘의 질서를 어지럽히기 시작했소. 그들이 맡은 일을 멀리 저버리어)”라고 했는데, 孔傳에 “遐는 멀다(遠)의 뜻”이라고 했다. 蔡沈 集傳에 “그 말은 바 일을 멀리하단의 뜻”이라고 했다.

[4] 馬楠(2016)은 마땅히 “大夫假事，便嬖知官事長”이라고 끊어 읽어야 한다고 했다.20) 知는 주관하다(主持), 관장하다(掌管)의 뜻이다. 《左傳·襄公二十六年》에 “公孫揮曰：‘子產其將知政矣！讓不失禮(이에 공손휘가 말하기를 “자산은 장차 정권을 관장할 만하구나! 겸양하면서도 예를 잃지 않았다)”’고 했다. ‘知官事長’은 맡은 직책을 관장하고 君長(君長)을 잘 받들어 모시다는 뜻이다.

[5] 整理者(2016): 庭은 도읍의 정무를 보던 곳으로, 후세의 縣廷과 같은

19) 單育辰, <清華六《管仲》釋文商榷>, 未刊稿.

20) 馬楠, 清華大學出土文獻讀書會, <清華六整理報告補正>, 清華大學出土文獻與保護中心網, 2016.04.16.

곳이다.

[6] 整理者(2016)는 零落은 《說文》의 ‘落’字에 “풀이 시든 것을 零이라 하고, 나무가 마른 것을 落이라 한다.”고 했다. 여기서는 쇠락함을 말한다.

[7] 整理者(2016): 五紀는 《書·洪範》에 “協用五紀(五紀로 하늘의 운행에 합치하도록 하는 것이오)”라고 했고, 또 “五紀: 一曰歲, 二曰月, 三曰日, 四曰星辰, 五曰曆數(五紀는 첫째는 해이며, 둘째는 달이고, 셋째는 날이며, 넷째는 별이고, 다섯째는 역법입니다.)”라고 했다.²¹⁾ 또 《管子·幼官》에 “五紀不解, 庶人之守也(五紀는 게을리 할 수 없으니 서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이다)”에도 보인다.²²⁾

[8] 整理者(2016): 四稱은 《管子》에 <四稱>篇이 있는데, 注에 “謂稱有道之君, 無道之君, 有道之臣, 無道之臣, 以戒桓公(도가 있는 군주, 무도한 군주, 도가 있는 신하, 무도한 신하를 이르며, 환공에게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다)”라고 했다.

[9] 整理者(2016)는 《書·舜典》에 “五流有宅, 五宅三居(다섯 가지로 나누어 귀양을 보내되, 이에 있어 세 곳으로 보내시오)”라고 한 ‘五宅’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했으며, 또 《鶡冠子·天權》의 “五度既正(오행이 바르면)”이라는 구절에서 陸佃이 五度は “左는 木, 右는 金, 前은 火, 後는 水, 中은 土”라고 풀이했는데, 五度일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整理者의 두 가지 해석 중 후자가 맞다고 생각된다. 五度は 즉 五行이다. 執五度(五行)는 위 다섯 가지 材(五行)

21) 고대 사회에 있어 協用五紀의 중요성은 《書·洪範》에 보이는 다음 구절을 통해 드러난다. “曰王省惟歲, 卿士惟月, 師尹惟日. 歲月日, 時無易, 百穀用成, 乂用明, 俊民用章, 家用平康. 日月歲, 時既易, 百穀用不成, 乂用昏不明, 俊民用微, 家用不寧.(임금은 해를 살펴야 되고, 공경과 관리들은 달을, 낮은 관리들은 날을 살펴야 합니다. 해와 달과 날을 따라 철의 돌아감이 어긋나지 아니하면, 모든 곡식이 잘 여물고, 다스림이 밝아지며, 뛰어난 사람들이 드러나고, 집안이 안락해질 것입니다. 날과 달과 해를 통하여 철의 돌아감에 어긋남이 있다면 모든 곡식이 잘 여물지 못하고, 다스림이 어둡고 밝지 않게 될 것이며, 뛰어난 사람들이 숨겨지고, 집안이 편안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22) 《管子·幼官》에 나오는 “五紀不解, 庶人之守也(五紀는 게을리 할 수 없으니 서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이다)”와 관련해, 광말약은 五紀를 五終의 잘못으로, 解는 懈로 바뀌어야 한다고 보았다. 五終은 《管子·經言·立政》에 나오는 山林, 川澤, 田野, 畜牧, 工事 등 5가지 국가경제 핵심 사안을 지칭한다.(신동준, p.334)

를 잘 다스린다는 의미이다.

[10] 整理者(2016): 六政은 《大戴禮記·盛德》의 “御天地與人與事者, 亦有六政(天地와 사람과 일을 다스리는 것에는 또한 여섯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구절에 있는데, 盧辯의 注에 “六政은 道, 德, 仁, 聖, 禮, 義를 가리킨다”고 했다.

[11] 整理者(2016): 圭 은 '匡'의 통가로 추정된다. 《左傳》 襄公十四년에 “過則匡之(허물이 있으면 곧 그것을 고치다)”라고 했는데, 杜注에 “바르게 하다(正)의 뜻”이라고 했다. 이 문장 “圭 之以叁, 度之以五”는 앞 문장 “斂之叁, 博之以五”와 상호 연관이 있다.

[12] 逸은 석방하다(釋放)의 뜻이다. 《玉篇·兔部》에 “逸은 풀다(縱)의 뜻”이라고 했다. 《左傳·成公十六年》에 “明日復戰, 乃逸楚囚(내일 다시 싸운다! 라고 하고서는 초나라 포로를 풀어주었다)”라고 했는데, 杜預 注에 “逸은 풀어주다(縱)의 뜻”이라고 했다.

[13] 惕은 《玉篇·心部》에 “惕은 두려워하다(懼)의 뜻”이라고 했다. 여기서 는 사역동사로, 두려워하게 하다(使戒懼)의 뜻이다.

[14] 簡은 실재를 확인하다(核實)의 뜻이다. 《書·呂刑》에 “五辭簡孚, 正於五刑(그들의 말이 다섯 가지 형벌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만약 해당하면 다섯 가지 형벌을 올바르게 집행하시오)”라고 했는데, 蔡沈 集傳에 “簡은 그 실재를 확인하다(核其實)의 뜻”이라고 했다.

[15] 成은 결단하다(裁決)의 뜻이다. 《周禮·秋官·訝士》에 “四方有亂獄, 則往而成之(四方 제후국 가운데 옥사를 어지럽히는 곳이 있으면 직접 가서 판결하고 바로잡는다)”라고 했는데, 孫詒讓 正義에서 惠士奇를 인용하여 “成이라는 것은 사건을 심판하고 판결하는 것을 이른다.”라고 했다. 《禮記·王制》에 “疑獄……必察小大之比以成之(옥사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 크고 작은 사건을 반드시 잘 살펴서 판결한다)”라고 했다.

[16] 整理者(2016): 縣은 匠人이 아래로 늘어뜨려 측량할 때 쓰는 도구이다. 《周禮·考工記·旃人》의 “豆中縣(豆는 끈게 수직으로 늘어뜨린 실 縣에 맞아야 하며)”이라는 구절의 鄭玄 注 참조.

【간문 번역6】

齊桓公이 또 管仲에게 물었다. “仲父, 천량의 戰車를 가지고 있는 諸侯國이 刑法과 政令도 이미 모두 아주 엄하지만, 백성들은 나태하고 태만하며, 大夫들은 政事를 돌보지 않고, 눈치나 보며 아첨하는 신하들이 官府를 장악하고, 君長을 모시며 官署와 鄉村이 쇠락하고 田地는 개간할 수 없다면, 감히 문건대 이전의 문덕이 있는 君主는 이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管仲이 대답했다. “歲, 月, 日, 星辰, 曆數의 五紀를 바로 살피어 어긋나지 아니하게 하고, 道가 있는 군주와 무도한 군주, 道가 있는 신하, 무도한 신하의 구분을 신중히 해 삼가고 경계하며, 다섯 가지 요소(五行)를 잘 다스리며²³⁾, 道德仁聖禮義의 六政을 닦고 행합니다. 色으로 꾸미고, 音으로 고르게 하고, 味로 조화롭게 하고²⁴⁾²⁵⁾,

23) 《尚書·虞書·大禹謨》에 보면 “..... 政在養民. 水, 火, 金, 木, 土, 穀, 惟修; 正德, 利用, 厚生, 惟和, 兪! 地平天成, 六府三事允治, 萬世永賴, 時乃功. (정치는 백성을 보호하여 잘 살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물, 불, 쇠, 나무, 흙 및 곡식들을 잘 다스리시고, 또 덕을 바로잡고, 쓰는 것을 편리하게 하며, 생활을 풍족하게 해주어 잘 화합하도록 하십시오. 그렇소. 땅을 잘 다스리어 하늘의 뜻을 이루고 여섯 가지 중요한 물자(六府)와 ‘세 가지 일(三事)’이 참말로 잘 다스려져 만세토록 영원히 힘을 잃게 된다면 이는 그대들의 공일 것이오.”라는 구절이 있다. ‘음양오행설과 관련 문헌의 연구(徐復觀)에 따르면, 위에서 이야기된 곡식(穀)은 생활에 필요한 물건으로, 水, 火, 金, 木, 土가 穀과 함께 六府로 병렬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들 역시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자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正德·利用·厚生(三事)과 함께 정치행위의 중대한 목표가 되는 것이다.(《음양오행설의 연구》, 김홍경 편역, p.70)

한편 동 연구논문에도 따르면, “《左傳·襄公二十七年》에 “子罕이 하늘이 五材를 낳았으니 백성들이 그것을 사용한다.”라고 말하였다는 구절이 있는데 육부 중에 穀은 실상 토로부터 나오므로 여기서는 육부에서 곡을 제외하여 五材라고 하였던 것이며, 五材는 생활 속에서 ‘통용되는’ 필수불가결한 것이었기 때문에 五行이라고도 하게 되었다. 따라서 五行은 광범위하게 응용되는 다섯 가지의 생활 자료를 가리키며, 《左傳·昭公二十九年》에는 “오행을 다스리는 관리가 있었으니 이것을 五官이라고 합니다.”라는 구절이 있다. (상기 책 pp.70-71, 73) 《尚書·洪範》에 나타나는 오행의 개념 및 해석 또한 상기 개념과 완전히 일치하며, 곧 사회생활에 필요한 필수적인 다섯 가지 실용적인 생활 자료들이다. (상기 책 p.117) 우주만물이 五行의 역동적인 결합으로 만들어진다는 개념은 제나라 말기의 철학자·음양가인 鄒衍(B.C.305-240) 이후 생겨난 개념으로 이러한 개념이 널리 유행한 것은 秦·漢 교체기 이후이다.

24) 《左傳·昭公二十年》에 보면 “선왕들이 五味를 조절하고, 五音을 조화시킨 것은 마음을 화평하게 하고 다스림을 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니다.(先王之濟五味, 和五聲也, 以平其心, 成其政也)”라는 구절이 있다.

25) 《左傳·昭公元年》에 “하늘에는 六氣가 있다. 그것이 하강하여 五味가 되고, 발하여서는 五色이 되고, 드러나서는 五聲이 되고, 질서를 잃으면 六疾이 된다. 六氣란 陰, 陽, 風, 雨, 晦, 明이다. 그것이 나누어지면 四時가 되고, 질서를 갖추면 五節이 되고, 지나치면 재앙이

길을 닦아 통하도록 하며²⁶⁾, 三才之法으로 바르게 하고, 五倫之教로 법도를 삼게 합니다. 작은 過失은 處罰을 면해주지만, (잘못을 범한 사람으로 하여금) 경계하고 두려워하게 해야 합니다. 큰 사건은 사실에 비추어 본 후 판단을 해야 합니다. 恩德을 베풀되 匠人의 곤게 늘어뜨린 추처럼 그렇게 엄정해야 합니다. 政令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木工이 나무에 먹줄을 칠 때 사용하는 먹줄처럼 발라야 합니다.”

【간문7】

桓(桓)公或 鬻(問) 筭(管)中(仲)曰：“中(仲)父，既執(設)丌(其)紀，既訓[1]丌(其)經[2]，敢 鬻(問)可(何)以執成[3]?” 筭(管)中(仲) 倉(答)：“君 壘(當)歲，夫=(大夫) 壘(當)月，市(師) 君(尹) 壘(當)日[4]， 女(焉)智(知)少多；皮(披)[5]落(落)[6]核(核)成[7]， 女(焉)爲賞罰； 走(上) 愨(賢)以正百官之典[8][9]。是古(故)它(施)正(政)命(令)， 旻(得)[10]以時尾(度)[11]，是古(故)六頤(擾)[12]不 臠(瘠)[13]，五種時管(熟)，民人不夭。”

桓公或問管仲曰：“仲父，既設其紀，既訓其經，敢問何以執成?”管仲答：“君當

된다.”라는 구절이 있다. 위의 인용문에 의하면 六氣는 五味와 五聲, 五色 등을 낳는다. 우리는 이로부터 ‘五’라는 숫자를 응용하는 것이 고대의 관습이지 ‘五行’의 ‘五’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위의 인용문에서는 六氣가 중심 관념이기 때문이다. 주의 해야 할 것은 맛이나 색, 소리 등이 모두 사물 자체가 아니라 인간 생활과 관련이 있는 사물의 속성이라는 점이다. 곧 이 시기에는 六氣가 인간 생활과 관련이 있는 사물의 세 가지 속성을 낳는다는 인식만 존재하였을 뿐이며, 六氣가 만물을 낳는다는 인식은 존재하지 않았다.(상기 書 pp.63-64)

26) ‘行之以行’에서 뒤의 行은 五行의 行으로 보기 보다는 단순히 ‘길’을 의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된다. 고대에 길을 닦아 통하게 함은 치국에 있어 중요한 일의 하나였다. 한편 ‘음양오행설과 관련 문헌의 연구’(徐復觀)에 따르면, 《논어》에 “子長이 行에 대해서 물었다”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에서의 行이란 통행되어 막힘이 없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오행은 광범위하게 응용되는 생활 자료를 가리킨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적인 생활 자료와는 구별되어 특별한 중요성을 가진다.(상기 書 p.71)

歲，大夫當月，師尹當日，焉知少多；披落核成，焉爲賞罰；上賢以正百官之典。是故施政令，得以時度；是故六擾不瘠，五種時熟，民人不夭。”

【주석7】

[1] 訓은 가르치고 훈계하디의 뜻이다. 《說文·言部》에 “訓은 설교하다(說教)의 뜻”이라고 했다. 《左傳·桓公十三年》에 “訓諸司以德(여러 관리들을 덕으로 가르치고 훈계하며)”라고 했다.

[2] 經은 법도이다. 《漢書·司馬遷傳》에 “此天道之大經也(이 천도야말로 가장 큰 법도이다)”라고 했는데, 顏師古 注에 “經은 常法の 뜻”이라고 했다.

[3] 執成은 이룬 바를 심사하디의 뜻이다. 執은 판결하다(裁決)의 뜻이다. 《禮記·中庸》에 “發強剛毅，足以有執也(뜻을 세우고 강건하며 강직하고 곧으면 일을 판결하기에 족하다)”라고 했는데, 孔穎達 疏에 “執은 판결하다(斷)와 같은 뜻이다. 孔子께서 뜻이 굳세고 강건하고 꾀꾀하여 일을 판결하기에 족했음을 말한다.”고 했다.

[4] 整理者(2016)는 《書·洪範》의 “王省惟歲，卿士惟月，師尹惟日，歲月日時無易，百穀用成(왕은 해를 살피어야 되고, 공경과 관리들은 달을, 낮은 관리들은 날을 살피야 합니다. 해와 달과 날을 따라 철의 돌아감이 어긋나지 아니하면 모든 곡식이 잘 여물고)”라는 구절을 인용해 설명했다. 여기서 當은 주관하다(主持), 관장하다(執掌)의 뜻이다. 《廣韻·唐韻》에 “當은 주관하다(主)의 뜻”이라고 했다. 《說文·田部》朱駿聲《說文通訓定聲》에 “當은 掌으로 통가되었다.”고 했다. 《禮記·中庸》에 “日省月試，既廩稱事，所以勸百工也(날마다 그 하는 일의 과정을 살피고 달마다 그 일의 진척상황을 조사해 성과에 따라 녹미를 주는 것은 百工을 권장하는 방법이요)”라고 했는데, 注에 “그 이룬 성과를 심사하다”라고 했다.

[5] 皮는 ‘披’의 통가로, 분석하다(分析), 변별하다(辨析)의 뜻이다. 《魏書·禮志一》에 “臣等承旨，披究往說，各有其理(신 등이 뜻을 받들어 이전의 학설을 연구 분석해보니 각기 이치가 있습니다.)”라고 했다.

[6] 整理者(2016): 落은 ‘敗’로 풀이할 수 있다. 《廣雅·釋詁三》에 “露는 敗의 뜻”이라고 했다. 王念孫 疏證을 참조

[7] 賅는 ‘核’의 통가로, 심사하다(審核)의 뜻이다. 《莊子·人間世》에 “剗核大至, 則必有不肖之心應之, 而不知其然也(혹독하게 심사하고 지나치게 날날이 파해치면 필시 좋지 않은 마음이 일게 되지만 그 연유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했는데, 成玄英 疏에서 “夫剗切責核, 逼迫太甚, 則不善之心熒然自應(무릇 혹독하게 자르고 꾸짖어 심사하며 너무 심하게 다그치면 불순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니)”라고 했다. “披落核成”은 성과 敗의 원인을 분석하고 심사하도의 뜻이다.

[8] 黃傑(網名‘暮四郎’): “上賢以正百官之典”은 한 구절로 풀이해야 한다.²⁷⁾

[9] 整理者(2016): 典은 《儀禮·士昏禮》에 “吾子順先典(당신께서 선인의 법도에 따라)”라고 했는데, 鄭注에 “常, 法の 뜻”이라고 했다.

[10] 得은 능히(能)의 뜻이다. 《論語·述而》에 “聖人, 吾不得而見之矣(성인은 내가 능히 만나볼 수 없으니)”라고 했다.

[11] 時度는 《墨子·節葬下》에 “若苟亂, 是祭祀不時度也(만약 어지러워지면 제사 지내는 시기와 법도가 어지러워진다)”고 했다. 時는 《說文·日部》에 “時는 사시(四時)의 뜻”이라고 했는데, 段注에 “時는引申되어 무릇 해와 달과 날과 시를 말할 때 사용된다.”고 했다. 《後漢書·顯宗孝明帝紀》에 “正儀度(천체 운행을 측량하는儀와 일월성진의 行度を 바르게 하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李賢 注에 “度는 日月星辰의 운행 軌도를 말한다.”고 했다. 簡文에서는 명사로 쓰였으며, 《墨子·節葬下》에서는 동사로 쓰여 시기에 맞게 하다(按時)의 뜻이다.

[12] 整理者(2016): 六擾는 곧 六畜이다. 《漢書·地理志》에 “畜宜六擾(집에서 기른 가축은 여섯 가지가 있고)”라고 했는데, 顏注에 “말, 소, 양, 돼지, 개, 닭이다. 擾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길들여 기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27) 簡帛網, 簡帛論壇 簡帛研讀, <淸華六<管仲>初讀>帖, 22樓.

[13] 瘠은 전염병이다. 《公羊傳·莊公二十年》에 “大災者何? 大瘠也。大瘠者何? 痢也(큰 재난이라 함은 무엇인가? 大瘠이다。大瘠이라 함은 무엇인가? 전염병이다)”라고 했는데, 何休 注에 “瘠은 병이다。齊人의 말이다。痢는 백성들의 전염병”이라고 했다. 《集韻·祭韻》에 “痢는 전염병이다。또는 癘라고도 한다.”고 했다.

【간문 번역7】

齊桓公이 또 管仲에게 물었다. “仲父, 이미 紀(紀)를 세웠고, 이미 經(經)로 가르쳐 인도했습니다. 감히 묻건대 그들의 공적을 어떻게 살펴 심사해야 합니까?” 管仲이 대답하였다. “나라의 군주는 매년의 심사를 주관하고, 대부분은 매달의 심사를 주관하며, 百官들은 매일의 심사를 주관하고, 이렇게 하면 곧 모자라고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敗를 분석하고 成을 심사해 賞罰을 시행합니다. 才德이 있는 이를 윗자리에 앉혀 百官을 선발하는 규범을 바르게 합니다. 그리하여 政令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시기와 法도에 부합하도록 하고, 六畜에게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五穀이 시기에 맞춰 여물도록 하면 百姓들이 요절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했다.

【간문8】

桓(桓)公或(又) 嚳(問)於 箕(管)中(仲)曰: “中(仲)父, 壽(前)又(有) 道之君可(何)以 保(保) 邦?” 箕(管)中(仲) 倉(答)曰: “壽(前)又(有) 道之君所以 保(保) 邦, 天子之明者, 能 旻(得) 儻(僕) [1]四人同心, 而 侶(已) 五 女(焉); 者(諸) 侯之明者, 能 旻(得) 儻(僕) 三人同心, 而 侶(已) 四 女(焉); 夫(大夫)之明者, 能 旻(得) 儻(僕) 二人同心, 而 侶(已) 三 女(焉).”

桓公或問於管仲曰: “仲父, 前有道之君何以保邦?”管仲答曰: “前有道之君所以

保邦，天子之明者，能得僕四人同心，而已五焉；諸侯之明者，能得僕三人同心，而已四焉；大夫之明者，能得僕二人同心，而已三焉。”

【주석8】

[1] 整理者(2016): 僕は 俞樾《諸子平議·墨子》의 “伊尹爲莘氏女師僕(伊尹은 莘氏의 女師를 했던 신하)”에서 말한 “신하(臣)와 같다”고 했다.

【간문 번역8】

齊桓公이 또 管仲에게 물었다. “仲父, 이전에 道가 있는 君主는 어떻게 國家를 보전할 수 있었습니까?” 管仲이 대답하였다. “이전에 道가 있는 君主는 다음과 같이 해서 國家를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賢明한 天子는 같은 마음 같은 뜻을 지닌 신하 네 명을 얻으면 되었는데²⁸⁾, 거기에 자신을 더하여 다섯이 되기 때문입니다. 賢明한 諸侯는 같은 마음 같은 뜻을 지닌 신하 셋을 얻으면 되었는데, 거기에 자신을 더하여 넷이 되기 때문입니다. 賢明한 大夫는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진 신하 둘을 얻으면 되었는데, 거기에 자신을 더하여 셋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문9】

桓 (桓)公或 鬻 (問)於 笑 (管)中(仲)曰: “中(仲)父, 魯 (朝) [1]天下之邦君[2], 管 (孰) 可以爲君? 管 (孰) 不可以爲君?” 笑 (管)中(仲) 倉 (答) 曰: “臣 鬻 (聞)之, 湯可以爲君。湯之行正, 而 蓮 (勤) 事也, 必哉[3]於宜 (義), 而成於戾 (度) [4], 少 (小) 大之事, 必智 (知) 丌 (其) 古 (故)。和民以 惠 (德), 執事又 (有) 棟

28) 《書·虞書》<堯典>에 “회중에게 따로 명하시어 동쪽 바닷가에 살게 하니..... 다시 회숙에게 명하시어 남쪽 대고산에 살게 하니..... 회중에게 따로 명하시어 서쪽 땅에 살게 하니..... 다시 회숙에게 명하시어 북쪽 땅에 살게 하니.....(分命義仲, 宅隅夷,申命義叔, 宅南極,分命和仲, 宅西土,申命和叔, 宅朔方,”라는 구절이 보인다. 천자는 천하(四方)을 다스림을 뜻한다.

(敘) [5], 既惠於民, 聖(聽) [6]以行武, 哉於丌(其)身, 以正天下。若夫湯者, 可以爲君才(哉)! 及句(后)辛之身, 丌(其)童(動)亡(無)豊(禮), 丌(其)言亡(無)宜(義), 𠄎(乘)丌(其)欲[7]而緘丌(其)恚(過) [8], 既 台] (怠)於正(政), 或以民戲[9]。凡丌(其)民人, 老者 忞(願) [10]死, 勛(壯)者 忞(願)行, 忞(恐)辜(罪)之不 培(決) [11], 而型(刑)之方(放) [12], 冑(怨)亦未 諶(濟) [13], 邦以 卒(卒)喪。若句(后)辛者, 不可以爲君才(哉)!”

桓公或問於管仲曰:“仲父, 朝天下之邦君, 孰可以爲君?孰不可以爲君?”管仲答曰:“臣聞之, 湯可以爲君。湯之行正, 而勤事也, 必哉於義, 而成於度, 小大之事, 必知其故, 和民以德, 執事有敘, 既惠於民, 聽以行武, 哉於其身, 以正天下。若夫湯者, 可以爲君哉! 及后辛之身, 其動無禮, 其言無義, 逞其恚而極其過, 既怠於政, 又以民戲。凡其民人, 老者願死, 壯者願行, 恐罪之不決, 而刑之放, 怨亦未濟, 邦以卒喪。若后辛者, 不可以爲君哉。”

【주석9】

[1] 𠄎 은 ‘蠲’의 初文으로, ‘朝’의 통가이며, 와서 알현하게 하다는 뜻이다. 《孟子·公孫丑上》에 “武丁朝諸侯, 有天下, 猶運之掌也(무정은 제후들의 조회를 받아 천하를 차지하기를 손바닥 위에서 움직이듯 했다)”고 했다.

[2] 邦君은 諸侯國의 군주이다. 《書·伊訓》에 “卿士有一於身, 家必喪. 邦君有一於身, 國必亡(이것은 卿士가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집안이 반드시 망할 것이요, 나라의 군주가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나라가 반드시 망할 것이요)”라고 했는데, 孔傳에 “諸侯가 이것을 범하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했다.

[3] 整理者(2016): 哉는 ‘시작하다(始)’로 풀이되며, 그 다음에 나오는 “哉於其身”에서도 동일하다. 《爾雅·釋詁》를 참조할 것.

[4] 整理者(2016): 度は 《書·盤庚上》에 “度乃口(그대들의 입을 법도에

맞도록 쓰시오)”라고 했는데, 孔疏에 “법도(法度)의 뜻”이라고 했다.

[5] 網友 ‘bulang’: “執事有綜”은 ‘有敘’ 또는 ‘有序’이다.²⁹⁾

[6] 整理者(2016): 聖은 聽의 통가로, 백성들이 명을 따르다를 말한다.

[7] 駱珍伊(2016): ‘承’은 ‘逞’의 통가로 추정되며, 그 욕구하는 바를 마음껏 다하다의 뜻이다. 乘(상고음이 神성모 蒸운부)과 逞(상고음이 徹성모 耕운부)는 성모가 舌齒音이고, 운부가 蒸耕旁轉이다.³⁰⁾

[8] 黃傑(網名‘暮四郎’): ‘紆’을 ‘巨’聲의 글자로 간주하면 아마도 적합한 해석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紆’은 아마 ‘巫’聲의 글자로 추정해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앞서 이미 楚簡에 일부 글자들이 얼핏 보기에는 ‘巨’의 글자로 보였으나 실은 ‘巫’聲의 글자인 예가 있었다.(裘錫圭, <是“恆先”還是“極先”?>(2011)을 참조) 여기서 ‘紆’도 ‘極’의 통가로 볼 수 있으며, “極其過”는 그의 과오가 극에 이르다라고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³¹⁾

[9] 單育辰: 글자 그대로 ‘戲’로 풀이해도 의미가 통한다. 즉 놀리다, 괴롭히다의 뜻이다. 굳이 ‘害’로 풀이하지 않아도 된다.³²⁾

[10] 整理者(2016): ‘忖’은 ‘願’의 통가로, 《爾雅·釋詁》에 “생각하다(思)의 뜻”이라고 했다.

[11] 曹方向(網名‘魚遊春水’)은 簡文의 ‘夬’를 ‘決’의 통가로 볼 수는 없을까라고 하면서, 簡文의 “恐罪之不決而刑之放”은 일단 범죄 혐의(물론 정말로 죄가 있는 경우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가 있으면 죄명이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먼저 형벌을 받을까 걱정하다의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 하면서, 《後漢書》에 법에서 의심이 가는 것은 판결을 하지 말아야 하고 죄가 의심스러운 것은 신중하게 판결해야 하지만, 참혹하고 도가 없는 시대에는 죄가 정해지지 않아도 형벌이 남용되곤 한다는 구절이 있다고 했다.³³⁾

29) 簡帛網, 簡帛論壇 簡帛研讀, <清華六《管仲》初讀>帖, 12樓.

30) 駱珍伊, <《清華陸·管仲》筭記七則>, 簡帛網, 2016.04.23.

31) 簡帛網, 簡帛論壇 簡帛研讀, <清華六《管仲》初讀>帖, 25樓.

32) 單育辰, <清華六《管仲》釋文商榷>, 未刊稿.

33) 簡帛網, 簡帛論壇 簡帛研讀, <清華六《管仲》初讀>帖, 36樓.

培 은 '決'의 통가로, 판결하다(判決)의 뜻이다. 《東觀漢記》에 “夜遣吏到屬縣盡決罪行刑(밤에 관리를 보내 소속 현에 가서 죄를 판결하고 형을 행하러 하자)”라고 했다.

[12] 整理者(2016): 方은 '放'의 통가이다. 《孟子·梁惠王下》에 “放於琅邪(琅邪에 이르다)”라고 했는데, 趙岐 注에 “이르다(至)의 뜻”이라고 했다.

[13] 整理者(2016): 護 는 '濟'의 통가이다. 《詩·載馳》에 “不能旋濟(멈추어 돌아올 수 없네)”라고 했는데, 毛傳에 “멈추다(止)의 뜻”이라고 했다. “怨亦未濟”의 '亦'은 '같다(猶)', '오히려(尙)'의 뜻이다. 《古書虛字集釋》(179 쪽)에 나온다.

【간문 번역9】

齊桓公이 管仲에게 또 물었다. “仲父, 어떤 사람이 天下의 諸侯들을 거느리고 군주가 될 수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군주가 될 수 없습니까?” 管仲이 대답하였다. “제가 듣기에 湯은 君主가 될 수 있었습니다. 湯은 德行이 바르고 일을 부지런히 열심히 하며, 반드시 의로운데서 시작하고 法度 안에서 이룹니다. 크고 작은 일을 다룸에 있어 반드시 그 연고를 알고, 德으로 백성들을 화평하게 하며,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순서가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백성들이 순종한 후에야 무력을 쓰며, 자신을 다스리는데서 시작하여 중국에는 천하를 다스립니다. 湯과 같은 이러한 사람이라면 君主가 될 수 있습니다. 아! 帝辛(紂王) 때는 행동에 禮法이 없었고 언어에 規範이 없었으며 욕구를 좇아 마음대로 행동해 과오가 극에 달했고 政事에 태만할 뿐 아니라 백성을 괴롭히기까지 했습니다. 무릇 그의 백성들은 나이 든 사람은 죽기를 바라고, 장년들은 떠나기를 바랐으며, 죄명이 정해기도 전에 형벌이 가해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百姓들의 怨恨이 멈추지 않았으며 나라가 이로 인해 결국 멸망했습니다. 帝辛(紂王)과 같은 이런 사람은 君主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간문10】

桓(桓)公或 籛(問)於 筭(管)中(仲)曰：“中(仲)父，亦[1]尙(微)[2]是，丌(其)卽(次)[3]，君筭(孰)湯(揚)[4]也？”筭(管)中(仲) 倉(答)：“臣之 籛(聞)之也，夫周武王甚元[5]以智而武以良[6]，好宜(義)秉 惠(德)，又(有)孜(虔)[7]不解(懈)，爲民紀統(綱)。四或(國)和同，邦以安 寧(寧)，民乃 葆(保)昌。凡丌(其)民人， 遯(沛) 迋(務)[8]不愈(偷)[9]，莫悉(愛) 綰(勞)力於丌(其)王。若武王者，可以爲君才(哉)！及 學(幽)王之身，好 史(使)年(佞)[10]人而不 訐(信) 慙(哲)[11]良。夫年(佞)又(有)利 熨(氣)[12]，筭(篤)[13]利而弗行[14]。若 學(幽)王者，不可以爲君才(哉)！”

桓公或問於管仲曰：“仲父，亦微是，其次，君孰揚也？”管仲答：“臣之聞之也，夫周武王甚元以智而武以良，好義秉德，有虔不懈，爲民紀綱。四國和同，邦以安寧，民乃保昌。凡其民人，沛務不偷，莫愛勞力於其王。若武王者，可以爲君哉！及幽王之身，好使佞人而不信哲良。夫佞有利氣，篤利而弗行。若幽王者，不可以爲君哉！”

【주석10】

[1] 亦是 접속사로, 만약에의 뜻이다. 吳昌瑩 《經詞衍釋》卷三에 “亦是 의 미가 且와 같다. 且는 만약(若)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亦 또한 만약(若)의 의미 이다”라고 했다.

[2] 整理者(2016): ‘微’는 아니다(非)로 풀이된다. 是는 代詞로, 앞에서 말한 湯, 受(紂를 말함)를 가리킨다.

[3] 網友 ‘bulang’은 其卽을 ‘其次’의 통가로 보았다.³⁴⁾

34) 簡帛網, 簡帛論壇 簡帛研讀, <清華六<管仲>初讀>帖, 3樓.

[4] 揚은 '揚'의 통가로, 표창하다(顯揚)의 뜻이다. 《字彙·手部》에 “揚은 드러내다(顯), 밝히다(明)의 뜻”이라고 했다. 《淮南子·覽冥訓》에 “不彰其功, 不揚其聲(그 공적을 자랑하거나 그 명성을 세우고자 하지 않았고)”라고 했는데, 高誘의 注에 “彰, 揚은 모두 밝히다(明)의 뜻”이라고 했다.

[5] 整理者(2016): 元은 《左傳》文公十八년에 “謂之八元(八元이라 했다)”고 했는데, 杜注에 “선하다(善)의 뜻”이라고 했다.

[6] 整理者(2016): 두 '以'字는 모두 '而'로 풀이된다.

[7] 王挺斌(2016): '攷'은 '虔'의 통가로 추정되며, 공경하다(恭敬)의 뜻이다.³⁵⁾

[8] 逌 은 '述'字의 異體임이 분명하다. 고대에 𣎵과 𣎵은 통용되었다. 《詩·小雅·小弁》에 “萑葦淠淠(갈대 숲이 무성하네)”라고 했는데, 段玉裁의 《說文》'𣎵'字 주에 “淠淠는 𣎵𣎵의 가차”라고 했다. 《說文·辵部》에 “逌은 걷는 모습(行兒)”이라고 했다. 《玉篇·辵部》에 “逌은 급히 걷다(急走)의 뜻”이라고 했다. 이 의미는 전래문헌에서 대부분 '沛'로 나타냈다. 《說文·力部》에 “務는 달리다(趣)의 뜻”이라고 했는데, 徐鍇 繫傳에 “이 일에 달려 나아가다의 뜻”이라고 했다. 段玉裁 注에 “趣라는 것은 빨리 달리다(疾走)의 뜻이며, 務라는 것은 일에 있어서 빠른 것을 말한다”고 했다. 簡文의 '逌務'는 같은 의미를 연이어 사용한 것으로 '일에 있어서 빠른 것'을 말한다.

[9] 整理者(2016): 愈는 '偷'의 통가이다. 《左傳》襄公三十一年에 “其語偷(그의 말이 안일함만을 피하여)”라고 했는데, 杜預 注에 “안일함만을 탐하며 살다(苟且)의 뜻”이라고 했다.

[10] 整理者(2016): 年은 '佞'의 통가이다.

[11] 慤 은 '皙'의 통가로, 총명하고 어질고 현명한 사람을 말한다.

[12] 整理者(2016): 𣎵 는 '氣'의 통가로, 《玉篇》에 “시중들다(候)의 뜻”이라고 했다.

[13] 篤은 《爾雅·釋詁上》에서 “굳다(固)의 뜻”이라고 했다.

35) 王挺斌, <清華簡第六輯研讀節記>, 《出土文獻》(第九輯) p.200, 2016.

[14] 行은 가다(去), 떠나다(離開)의 뜻이다. 《廣韻·庚韻》에 “行은 가다(去)의 뜻”이라고 했다. 《左傳》僖公五年에 “宮之奇以其族行(궁지기가 그의 가족을 데리고 떠나면서)”라고 했는데, 杜預 注에 “行은 가다(去)의 뜻”이라고 했다.

【간문 번역10】

齊桓公이 또 管仲에게 물었다. “仲父, 이들 말고는 그 다음으로 어떤 군주를 들 수 있을까요?” 管仲이 대답하였다. “제가 듣건대 周武王이 선량하고 지혜로우며, 용맹하고 어질며, 義를 좋아하고 德을 지키고, 공경스럽고 태만하지 않아, 가히 백성들이 따라야 할 모범이 되었습니다. 천하가 화목하고 같은 마음 이어서 나라가 이로 인해 안정되고 태평하며 이에 백성들이 편안하며 창성하였습니다. 무릇 그의 백성들은 모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안일하지 않고 아무도 군주를 위해 노동과 힘을 쓰는 것에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武王과 같은 이러한 사람도 가히 君主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幽王 때가 되어서는 간사하고 아첨하는 사람을 쓰고, 어질고 현명한 사람을 신임하지 않았습니다. 아첨하는 사람은 이익을 좇으며 이익에 집착하여 이를 떠나지 못합니다. 幽王과 같은 이러한 사람은 君主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했다.

【간문11】

桓(桓)公或 鬻(問)於 箕(管)中(仲)曰: “中(仲)父, 今夫年(佞)者之利 鬻(氣)亦可 旻(得)而 鬻(聞)虎(乎)?” 箕(管)中(仲) 倉(答): “既年(佞)或 忒(仁) [1], 此胃(謂)成器 [2]. 疋(胥) [3] 舍(舍) [4]之邦, 此以[5]又(有)或(國), 天下又(有)丌(其)幾[6]. 夫年(佞)者之事君, 必 疋(前) 戡(敬)與考(巧), 而 遼(後) 替(僭)與譌[7], 以大又(有)求. 受命唯(雖) 綯(約), 出外必張, 唇(震)童(動) 遼(覲)畏(威) [8], 疋

(假) 龍 (寵) 以方 (放)。既蔽 (蔽) 於貨, 變 (冒) [9] 鬻 (亂) 毀 崇 (常)。既 旻 (得) 丌 (其) 利, 昏 豪 (謬) [10] 以行。然則或 改 (弛) 或張, 或緩或 緼 (急), 田 墜 (地) 壘 (壙) 虛 [11], 衆利不及 [12], 是胃 (謂) 學 (幽) 惠 (德) 。”

桓公或問於管仲曰：“仲父，今夫佞者之利氣亦可得而聞乎？”管仲答：“既佞或仁，此謂成器。胥舍之邦，此以有國，天下有其幾。夫佞者之事君，必前敬與巧，而後僭與譌，以大有求。受命雖約，出外必張，震動覲威，假寵以放。既蔽於貨，冒亂毀常。既得其利，昏謬以行。然則或弛或張，或緩或急，田地壙虛，衆利不及，是謂幽德。

【주석11】

[1] 仁은 사람에게 친절하고 어질다의 뜻이다. 《說文·人部》에 “仁은 친절하다(親)의 뜻”이라고 했다.

[2] 成器는 良器이다. 《禮記·王制》에 “錦文珠玉成器, 不粥於市(금문과 주옥과 아름답게 만든 그릇을 시장에서 팔아서는 안되며)”라고 했는데, 鄭玄 注에 “成은 善과 같다”고 했다.

[3] 胥는 과연 정말이라면(果眞), 만약(如果)의 뜻이다. 《古書虛字集釋》에 “글자는 간혹 ‘須’로도 쓴다. 《論衡·骨相》篇에 ‘誠是秦王須得志, (誠, 若也) 天下皆爲虜矣(만약 진왕이 천하를 삼킬 야욕을 이룬다면, (誠은 만약의 뜻이다.) 그는 장차 모든 사람들을 노예로 삼을 것이다)’라고 했다.”

[4] 舍는 주다(給予)의 뜻이다. 《墨子·耕柱》에 “見人之作餅, 則還然竊之曰: ‘舍余食(어떤 사람이 떡 만드는 것을 보고는 미혹되어 그것을 훔치며 말하기를, ‘나에게 먹으라고 줘 줘야지’”라고 했는데, 孫詒讓 閒詁에 “舍는 予의 가차이다. 고대에 ‘주다’의 의미 ‘予’字를 때로 ‘舍’로도 썼다. …… ‘舍余食’은 나에게 먹으라고 주다의 뜻”이라고 했다.

[5] 此는 이와 같이(如此), 이렇게(這般)의 뜻이다. 《詩·大雅·桑柔》에

“匪言不能, 胡此畏忌?(말할 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어찌 이렇게도 두려워하며 말 못하는 건가)”라고 했는데, 이는 접속사로, 순접관계를 나타낸다.

[6] 網友 ‘bulang’: 簡25 ‘幾’는 위태롭다(危殆)의 의미가 아닐까 싶다.(《故訓匯纂》690쪽)

[7] 整理者(2016): 譌는 《說文》에 “거짓말(僞言)의 뜻”이라고 했다. 《書·益稷》에 “汝無面從, 退有后言(그대들은 면전에서만 따르고 물러나서는 다른 말을 하여서는 안 되며)”라고 했다.

[8] 黃傑(網名 ‘暮四郎’)은 “辰童 蓮 畏”는 아마 “震動艱威”의 통가로 생각되지만, 의미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여기서 唇童은 ‘震動’의 통가이다. 《史記·魯仲連鄒陽列傳》에 “天下震動, 諸侯驚駭(천하가 진동하고 제후들이 모두 놀랐으며)”라고 했다. 蓮 은 ‘覲’의 통가로, 나타내다(顯示), 나타나다(顯現)의 뜻이다. 《書·立政》에 “以覲文王之耿光, 以揚武王之太烈(文왕의 밝은 빛을 뚜렷이 하시고 武왕의 큰 공을 드날리시니)”라고 했는데, 孔穎達 疏에 “文왕의 밝은 빛을 드러내 보이고, 武왕의 大業을 널리 퍼뜨리다”라고 했다. 畏는 ‘威’의 통가로, 위엄을 보이다, 위풍을 드러내다의 뜻이다.

[9] 趙平安(2016): 이 글자는 字形을 자세히 살펴보면 ‘從支, 從兩毛’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毛字의 필사법은 《璽匯》1833 毛, 上博簡 <緇衣> 簡14 毳의 필사법과 동일하다. 이는 아마도 毳의 異體字로 생각된다.

毳字는 《包山簡》58, 曾侯乙簡9에 보이는데, 從支, 毛聲으로 이루어져 있다. 毳는 𦘒로도 쓰며, 同形偏旁의 增繁에 해당한다. 簡文에서는 ‘冒’의 통가이다. 冒는 상고음이 幽운부 明성모에 속하며, 毛는 宵운부 明성모에 속하여 두 글자가 서로 통한다. 예를 들면 《文選·七發》에 “冒以山膚(산에 나는 나물)”이라고 했는데, 李注에 “冒와 毛는 古字가 통한다”고 했다. ‘冒亂’이라는 어휘는 전래 문헌에 자주 보인다. 《後漢書·郎顛傳》에 “《易》內傳曰: ‘久陰不雨, 亂氣也, <蒙>之<比>也. 蒙者, 君臣上下相冒亂也(《易》內傳에 ‘오랫동안 陰하면서 비가 오지 않으면 氣를 어지럽힌다. <蒙>이 <比>로 간다. 蒙이라는 것은 군주와 신하 상하가 서로 어지러운 것을 말한다.)”라고 했다

데, 冒亂毀常의 용법은 이와 비슷하다.³⁶⁾

[10] 寡 은 '謬'의 통가이다. 昏謬는 어리석고 터무니없다. 황당하다는 뜻이다. 《三國志·魏志·曹爽傳》에 “宣王稱疾困篤 …… 勝不能覺(선왕은 병이 위중한 척 하여 …… 勝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라고 했는데, 裴松之 注에서 《魏末傳》을 인용하여 “宣王乃復陽爲昏謬, 曰: ‘君方到並州, 努力自愛!’ 錯亂其辭, 狀如荒語(宣王은 이에 다시 정신이 혼탁한 것처럼 꾸며 말하기를, ‘그대가 방금 並州에 도착하였으니 노력하여 자중자에 하기 바라오!’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뒤죽박죽 황당한 말처럼 들렸다)”고 했다.

[11] 整理者(2016): 曠虛는 《管子·五輔》에 “實曠虛, 墾田疇(변방으로 백성을 보내 채우고, 전답을 개간하고)”라고 했다.

[12] 整理者(2016): 及은 《國語·周語中》에 “及陳(陳에 이르러)”라고 했는데, 韋注에 “이르다(至)의 뜻”이라고 했다.

【간문 번역11】

齊桓公이 또 管仲에게 물었다. “仲父, 이제 교묘한 말로 아첨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익을 쫓는지에 대해 내게 들려줄 수 있겠소?” 管仲이 대답하였다. “교묘한 말과 언변에 뛰어나면서 사람들에게 친절하면 이를 훌륭한 인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나라를 맡겨 그들이 나라를 갖게 되면 천하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교묘한 말로 아첨하는 사람들이 군주를 모시게 되면 반드시 면전에서 공경하고 비위를 맞추지만 물러나서는 참람한 행동과 거짓된 말을 하고, 이로써 자신의 탐욕을 키우려 할 것입니다. 명을 받들 때는 비록 절제하더라도 군주 곁을 떠나면 반드시 경박하게 떠벌이고 천하를 뒤흔들며 위세를 떨치며 군주의 총애를 빙자하여 제멋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이미 재물에 미혹되어 마음에 구멍이 났으니 자연스럽게 常法을 범하고 훼손할 것입니다. 이미 자신의 이익을 얻었다면 자연스럽게 어리석고 터무니없게 일을 행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그들은 개인적인 사익을 챙길 때는 아주 적극적이고 조급하게 할 것

36) 趙平安, <清華簡第六輯文字補釋六則>, 《出土文獻》(第九輯) p.184, 中西書局, 2016.

이며, 사익과 무관할 때는 대만하고 느리게 행할 것입니다. 중국에는 들판이 황무지로 변할 것이며 백성들은 이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를 일러 어두운 덕(幽暗之德)이라고 합니다.”

【간문12】

桓(桓)公或 鬻(問)於 筭(管)中(仲)：“爲君與爲臣孰(孰) 裝(勞)？”筭(管)中(仲) 倉(答)曰：“爲臣 裝(勞)才(哉)！……”“……不 裝(勞)而爲臣 裝(勞)虎(乎)？唯(雖)齊邦區區= (區區) [1], 不若蕃算, ……不 敦(穀), 余日三 隍 [2]之, 夕三 隍之, 爲君不 裝(勞)而爲臣 裝(勞)虎(乎)？”筭(管)中(仲)曰：“善才(哉)！女(汝)果若氏(是), 則爲君 裝(勞)才(哉)！”

桓公或問於管仲曰：“爲君與爲臣孰勞？”管仲答曰：“爲臣勞哉！……”“……不勞而爲臣勞乎？雖齊邦區區，不若蕃算……不穀，余日三隍之，夕三隍之，爲君不勞而爲臣勞乎？”管仲曰：“善哉！汝果若是，則爲君勞哉！”

【주석12】

[1] 整理者(2016): 區區는 《廣雅·釋訓》에 “작다(小)의 뜻”이라고 했다. “齊邦區區”는 문헌에서 간혹 “區區之齊”라고도 한다.

[2] 整理者(2016): 隍 은 ‘隍’의 통가로 추정되며, 《說文》에 “두려워하다(恐)의 뜻”이라고 했다. 여기서는 경계하고 두려워하다(戒懼)의 뜻이다.

【간문 번역12】

齊桓公이 管仲에게 또 물었다. “君主와 신하 어느 쪽이 더 힘듭니까?” 管仲이 대답하였다. “신하가 힘듭니다.” “……힘들지 않고, 신하가 힘듭니까? 비록 제나라가 작다고 하더라도 蕃算만 같지 못합니다. …… 不穀, 나는 낮에도 자주

두렵고 밤에도 자주 두렵습니다. 그런데 君主가 더 힘들지 않고 신하가 힘들다 할 수 있습니까?” 管仲이 대답하였다. “아주 훌륭합니다. 군주께서 과연 그러하시다니 그렇다면 君主가 더 힘듭니다.”

4. 맺음말

이상 淸華簡 <管仲> 전문을 주해하였다. 머리말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본 죽간은 齊桓公과 管仲 사이의 治國施政에 대한 대화로 이루어져 있는 전국시기의 죽간이며 전래본 《管子》의 逸書라는 점에서 《管子》가 쓰여진 시기를 포함해 《管子》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지닌 문헌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 간문에 음양과 오행 관념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尚書·洪範》편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내지 분명한 대응관계를 보임에 따라 학계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으며, 사상적 측면에서 전래본 《管子》와 서로 통하는 곳이 적지 않은 등 앞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할 영역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간문 전문에 대한 주해만으로도 본고의 분량이 다소 많았던 관계로 이들 부분에 대해서는 머리말에서 간단히 소개하는데 그치고 본문에서는 간문 전문에 대한 주해에 치중했다. 다만 본 죽간에 음양과 오행 관념이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했던 만큼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인지에 대해 본문의 주를 통해 명확히 살피고자 했으며, 더불어 본 죽간 내용 중의 五度(五紀), 그리고 五味, 五色, 五聲 등과 연관되는 것으로 이해되는 구절에 대해서도 전래문헌과의 연관관계와 그 나타내는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노력했다. 모쪼록 본 주해가 《管子》에 대해, 그리고 중국 고대 문헌과 정치사상 등 인접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국내 연구자들에게 참고가 되어 이들 제 분야에서 향후 많은 연구와 의미 있는 논의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 參考文獻 >

- 李學勤主編, 《清華大學藏戰國竹簡(壹)》, 上海: 中西書局, 2010.
 _____, 《清華大學藏戰國竹簡(陸)》, 上海: 中西書局, 2016.
- 曹方向, <清華簡《管仲》帝辛事蹟初探>, 簡帛網, 2016.
- 簡帛網, 簡帛論壇, 簡帛研讀, <清華六《管仲》初讀>帖—3樓, 12樓, 15樓, 16樓, 22樓, 36樓, 37樓, 39樓.
- 蔣偉男, <簡牘“毀”字補說>, 簡帛網, 2016.
- 李學勤, <有關春秋史事的清華簡五種綜述>, 《文物》, 2016, 3期.
- 劉國忠, <清華簡《管仲》初探>, 《文物》, 2016, 3期.
- 駱珍伊, <《清華陸·管仲》筭記七則>, 簡帛網, 2016.
- 龐壯城, <《清華簡(陸)》考釋零箋>, 簡帛網, 2016.
- 黔之榮, <清華簡(陸)《管仲》篇之“界務”試解>, 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網, 2016.
- 黔之榮, <釋清華簡(陸)《管仲》篇之“堅綴”>, 簡帛網, 2016.
- 清華大學出土文獻讀書會, <清華六整理報告補正>, 清華大學出土文獻與保護中心網, 2016.
- 單育辰, <清華六《管仲》釋文商榷>, 未刊稿.
- 王挺斌, <清華簡第六輯研讀筭記>, 《出土文獻》(第九輯), 2016.
- 趙平安, <清華簡第六輯文字補釋六則>, 《出土文獻》(第九輯), 中西書局, 2016.
- 김경수 저, 《출토문헌을 통해서 본 중국 고대 사상: 마왕퇴 한묘 백서와 관점 초묘 죽간을 중심으로》, 심산출판사, 2008.
- 김원중 역, 《사기열전》, 민음사, 2007.
- 김학주 역, 《書經》, 명문당, 2012.
- 신동준 옮김, 《관자》, 인간사랑, 2015.
- 신승운 외 옮김, 《대학연의1》, 전통문화연구회, 2015.
- 양계초 외 저, 김홍경 옮김 《음양오행설의 연구》, 신지서원, 1993.
- 이상옥 역, 《禮記》(상, 중, 하), 명문당, 1985.
- 장세후 역, 《춘추좌전》(상, 중), 을유문화사, 2012.
- 지재희·이준영 역, 《周禮》, 자유문고, 2002.
- 윤대식, <경세가 관중과 텍스트 『管子』 사이>, 《정치사상연구》 22집2호, 2016.
 _____, <관중의 국가책무 기획>, 《공자학》 32호, 2017.
- 이연주·張崇禮, <清華簡「傳說之命」주해>, 《중국학논총》 46집, 2014.
- 홍승현, <前漢시기 尙書學의 출현과 변용>, 《중국학보》 65집, 2012.

< Abstract >

Translation and Annotation of <Guan Zhong> in Tsinghua Bamboo Slips

Lee, Yeon-ju · Zhang, Chong-li

Guan Zhong(管仲) is one of the five old documents contained in the 6th release of Tsinghua Bamboo Slips(清華簡) – a collection of Chinese texts dating to the Warring States period acquired in 2008 by Tsinghua University. It contains the dialogue between the Duke Huan of Qi(齊桓公) and Guan Zhong(管仲) as to how to govern a country, which consists of 12 dialogues in which the Duke Huan of Qi(齊桓公) asks and Guan Zhong(管仲) answers. It is a newly found manuscript produced in the mid to late Warring States period which is not shown in the current Master Guan(管子). In Guan Zhong(<管仲>), the Yin Yang(陰陽) and the five elements(五行) notion is clearly shown and some contents of this bamboo manuscript shows a direct linkage to and clear correspondence with those in the Great Plan (洪範, Hong Fan) of the Book of Documents, therefore attracting the attention of the academic society.

Key words: Guan Zhong(管仲), Master Guan(管子), Duke Huan of Qi(齊桓公), Guanzi(管子), Great Plan(洪範), Great Plan(洪範) of the Book of Documents, Tsinghua Bamboo Slips(清華簡)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7. 07. 31.	2017. 08. 27.	2017. 08. 27.	2017. 09. 19.	2017. 09. 30.